



문 : 평소에 자주 복통을 경험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빈도가 잦은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답 : 의학적으로도 두통, 복통, 요통은 三大痛이라하여 상당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단순하게는 과식하거나 여름철에 배를 덮지 않고 잠을 자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가벼운 복통이나, 변비로 인한 하복부의 불편감부터 심하게는 장에 천공(구멍)이 생겨서 오는 극심한 복통까지 여러가지 원인으로 복통이 있게 된다.

하절기에 오는 복통이란 대개가 물을 끓이지 않고 마셨다든지 채 익지 않은 풋과실을 먹은 경우 혹은 날씨가 더운 관계로 부패한 음식물을 부주의하게 먹음으로 인해서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는 위장염이 주종을 이룬다.

음식물에서 오는 위장염 외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원인으로는 맹장염이라든지 장폐쇄, 위천공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빼놓을수없는 것으로는 기생충으로 인한 복통도 생각할수 있다. 세균성으로는 이질이나 하복통의 흔한 원인인데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인 장티푸

스도 여름철 복통과 무관할 수 없겠다. 그러나 장티푸스는 복통보다 고열이 더 문제가 된다. 처음에는 미열, 두통, 식욕부진, 오한등 감기와 비슷하게 증세가 진행하다가 급작히 39°~40℃ 정도의 고열이 시작되는데 무서운 것은 고열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강을 거듭하는 동안에 염증으로 인해 장벽이 점차로 얇아져서 마침내는 천공을 일으키고 복막염까지 불러 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치료가 지극히 어려워지므로 복통이 있으면 원인규명을 위해 조기진단 및 세밀한 장 검사등을 권하고 싶다.

<건협 서울지부 부속의원 이증범 박사>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평소 생활하시는 중에 건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담실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페이지입니다.

- 보내실곳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97번지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담당자 앞